

보도시점 2024. 7. 7.(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4. 7. 5.(금)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최종 승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5일 오후(현지 시각)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km²)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고창, 순천, 완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 창녕(2024)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국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 「습지보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또한 두 핵심구역을 연결하며 생태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이 완충구역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제외된 창녕군 전역이 협력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관인 창녕군은 습지 및 산림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보전하면서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우수 생태지역으로서 지역의 친환경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네스코 지역에 걸맞은 생태관광 사업으로 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창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우포늪으로 대표되는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이라며, “창녕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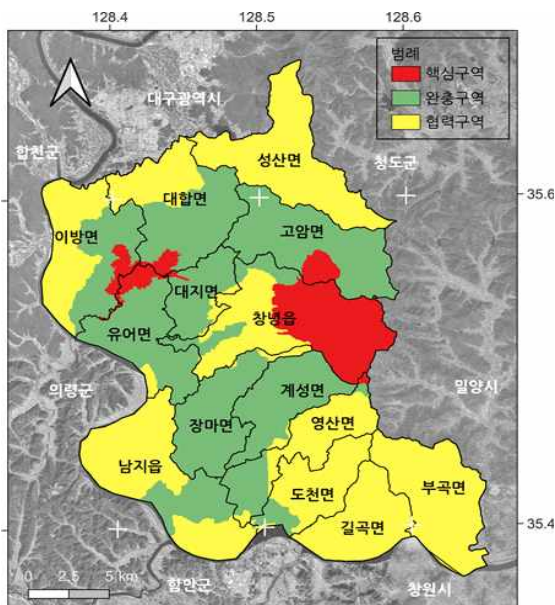
- 붙임 1.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개요 및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한상완 (044-201-7238)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처 국제협력부	책임자	부 장	김보현 (033-769-9520)
		담당자	계 장	장서윤 (033-769-9523)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개요**

- 명 칭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 범 위 : 창녕군 전역
- 총 면적 : 530.51km²(핵심 44.69km², 완충 252.16km², 협력 233.66km²)
- 용도구역
 - (핵심구역*)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화왕산 군립공원 일대
 - *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교란 최소화를 위해 국내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는 구역
 - (완충구역*) 우포늪 및 화왕산 주변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
 -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조사 및 연구, 훈련 및 교육, 휴양 및 생태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역
 - (협력구역*) 창녕군 경계 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주거, 농업, 산업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

<용도구역도>



명칭	상세 내용
핵심 (44.69km ²)	○ 우포늪 습지보호지역(8.547km²), 화왕산 군립공원(31.258km²)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완충 (252.16km ²)	○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 등
협력 (233.66km ²)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이외의 농경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사진 및 설명>

	
우포늪	화왕산
	
따오기	생태관광(쪽배타기 체험)

- (우포늪) 한국의 내륙습지 중 최대규모의 자연 배후습지로서 습지 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되어 있음
- (화왕산) 낙동강 본류로 합류하는 토평천과 지류 하천의 발원지로 참억새와 진달래 군락이 넓게 자리 잡고 있음
- (따오기) 창녕군은 한국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천연기념물 제198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복원에 성공하여 2019년부터 우포늪 주변에 방사하여 보전하고 있음
- (생태관광) 우포늪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쪽배타기 체험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후에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규제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지정현황은?

- 이번 제36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승인되어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10곳이 지정·관리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년도	지정면적	비고
설악산	1982	767.49km ²	‘16. 확대
제주도	2002	3,871.94km ²	‘19. 확대
신안다도해	2009	3,238.74km ²	‘16. 확대
광릉숲	2010	244.65km ²	
고창	2013	671.52km ²	
순천	2018	938.40km ²	
강원생태평화	2019	1,828.15km ²	
연천임진강	2019	584.12km ²	
완도	2021	4,038.99km ²	
창녕	2024	530.51km ²	

※ 북한(5개소) : 백두산(‘89), 구월산(‘04), 묘향산(‘09), 칠보산(‘14), 금강산(‘18)

-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은 '24년 6월 기준 총 134개국 748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
 - 1971년 출범한 유네스코 정부간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물권보전 지역(Biosphere Reserves) 사업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 훈련, 교류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환경부 훈령 제1020호(2013.1.2.)에 따라 환경부 산하에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는 생물권보전 지역 신청 및 관리지원을 비롯한 MAB 관련 연구, 교육, 자문, 국제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MAB; MAB-ICC)
 -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임기 4년), MAB 사업의 조정·감독·검토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신규 지정·확대 및 정기보고서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MAB 프로그램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대표 6개 이사국 중 하나이다.